



유행성 이하선염 및 수두, 수족구병 예방 안내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계절적 유행성이 높은 유행성 이하선염 및 수두, 수족구병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가정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유행성 이하선염

1. 원인 및 증상

- 원인병원체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(Mumps virus)감염에 의한 이하선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.
- 발병 초기에 발열, 두통, 근육통, 구토 등의 전구 증상을 1~2일간 보이며 시작하며 이하선을 주로 침범하여 압통과 종창(부어오름)을 나타낸다.
- 보통 2~3일 후에는 양쪽을 다 침범한다.
- 종창은 2~3일 내에 가장 심해지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점차 호전된다.



2. 유행성 이하선염의 전염성

-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에 의해 전파되거나 타액과의 접촉(침, 콧물 등)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파된다.

2 수두

1. 원인 및 증상

- 원인병원체: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(Varicella-zoster Virus:VZV)
- 감기 비슷한 증세로 시작한다.
- 처음에는 벌레물린 것처럼 붉은 자국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동반한다.
- 이 자국이 몸통에서 사지로 번지면서 이슬처럼 투명한 물집이 잡힌다.
- 물집들은 농포가 되었다가 말라 딱지가 지면서 회복된다.
- 어린이의 경우 보통 7~10일이 지나면 회복된다.

붉은 반점 ▶	물집 (수포성발진) ▶	딱지 ▶	은적

2. 수두의 전염성

- 감염경로 : 감염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흔히 전파되며, 공기 중의 비말이 호흡기를 통과거나 수두나 대상포진 피부병변 수포액의 직접 접촉 또는 분무 형태 흡입으로 전파
- 전염성이 강하므로 수두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삼가 한다.
- 전염되는 기간은 물집이 잡히기 1-2일 전부터 물집 잡히고 3-7일 뒤 딱지가 생길 때 까지다.
- 잠복기 : 10~21일(평균 14~16일)
- 격리기간 : 발진 후 7 ~ 10 일간/ 물집이 모두 딱지가 될 때까지 등교중지

3 수족구병

1. 원인 및 증상

- 원인병원체: 콕사키, 엔테로 바이러스
-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발열, 인후통, 식욕부진, 피로감(권태감)이 나타난다.
- 발열 1~2일 후 입안의 볼 안쪽,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.
-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,다리에도 나타난다.
- 어린이의 경우 보통 7~10일이 지나면 회복된다.

2. 수족구병의 전염성

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(침, 가래, 콧물, 수포의 진물 등)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(수건, 장남감, 집기 등)을 만지는 경우 전파됩니다.

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, 잠복기는 약 3~7일입니다.



수족구 환자 손바닥의 수포성 병변



입안의 수포성 병변



보건복지부
질병관리본부

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



첫째

비누를 사용해 **30초 동안**
충분히 손을 씻고,
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
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
기침예절 준수



둘째

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
즉시 **보건교사(담임교사)**에게 알리고,
환자는 **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**
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



셋째

감염병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
감염 환자는 **격리기간* 동안에**
등교를 하지 않고,
격리치료 중에는 **다른 사람에게**
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


격리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|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| 백일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| 홍역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

2022.9.20.

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